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 解讀*

김유범**

要約

본고는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에 대한 기존 해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더불어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한 차자표기 자료들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이를 새롭게 해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廣修供養歌>에는 고대국어의 어휘 및 문법 요소에 대해 천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연구 대상들이 존재하며, 이를 풀어 가는 과정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국어사의 이해를 요구한다. 특히 '執音馬'(*주머), '直体良焉多衣'(*고텬 다ᄋᆡ), '法供沙叱多奈'(*法供사 잇다 (ᄒᆞ)나), '伊於衣波'(*이어긔사) 등에 대한 해독은 본고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며 새롭게 해독안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廣修供養歌, 鄕歌, 解讀, 均如, 均如傳, 借字表記

---

* 이 논문은 2010년 3월 20일에 있었던 구결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당시 발표를 듣고 도움 말씀을 주셨던 여러 선생님들과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소중한 견해를 제시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1. 머리말

≪高麗大藏經≫ 補遺版에 들어 있는 ≪均如傳≫은 均如라는 인물에 대한 매우 귀중한 자료임은 물론, 本門 속의 [歌行化世分]에 그 모습을 남긴 詞腦歌 11수를 통해 국어국문학을 위한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단행본으로는 남아 있지 않고 오직 ≪高麗大藏經≫ 속에만 그 모습을 남겨 놓았다는 점 또한 ≪均如傳≫을 더욱 소중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다행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均如의 鄕歌 11수 중 세 번째 수에 해당하는 <廣修供養歌>를 해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많은 해독과 논의들이 있었지만, 이와 함께 이루어진 국어학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한 새로운 해독의 시도는 '完全한 解讀'으로 가는 求道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 역시 또 하나의 해독으로 남게 되겠지만, 앞선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정은 더 나은 해독의 길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양분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2. <廣修供養歌>와 관련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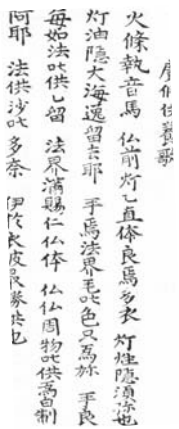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廣修供養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崔行歸의 漢譯詩 <廣修供養頌>과 더불어 ≪華嚴經≫ 권40의 이른바 普賢行願品 속의 行願 중 하나인 <廣修供養願>과 그 偈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1.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

≪高麗大藏經≫ 補遺版 治[illegible]에는 '釋華嚴教分記圓通鈔十卷'이 수록되

어 있는데, 이 중 끝의 19張에서 28張까지 10張의 경판이 바로 ≪均如傳≫이다.[1]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는 本門 중 제7 門 [歌行化世分]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廣修供養歌
火條執音馬
仏前灯乙直体良焉多衣
灯灶隱須弥也
灯油隱大海逸留去耶
手焉法界毛叱色只爲於
手良每如法叱供乙留
法界滿賜仁仏体
仏仏周物叱供爲白制
阿耶 法供沙叱多奈
伊於衣波最勝供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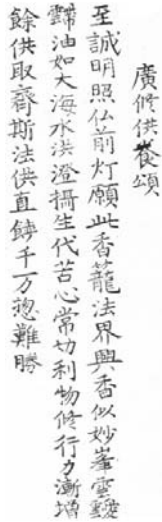
(敎分通抄第十卷 22:20-24)

1) ≪均如傳≫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序(19:2-11)
Ⓑ 本傳(19:12-28:5)
ⓐ 目次(19:12-15)
ⓑ 本門(19:16-27:23)
初降誕靈驗分(19:16-26), 二出家請益分(19:26-20:4), 三妨妹齊賢分(20:4-14),四立義定宗分(20:14-32),五解釋請章分(20:32-21:5), 六感通神異分(21:5-22:1), 七歌行化世分(22:1-24:5), 八譯歌現德分(24:5-27:5), 九感應降魔分(27:6-18), 十變易生死分(27:18-23)
ⓒ 後記(27:24-28:5)
Ⓒ 後序(28:5-12)

2.2. 崔行歸의 漢譯詩 〈廣修供養頌〉

≪均如傳≫의 本門 중 제8 門 [譯歌現德分]에는 翰林學士 崔行歸가 均如의 鄕歌 11수를 '頌'의 형식으로 漢譯한 漢譯詩가 실려 있다. 이 중 세 번째 漢譯詩인 <廣修供養頌>이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를 漢譯한 것인데, 鄕歌 句節과 一對一로 대응되는 漢譯이라기보다는 ≪華嚴經≫ 권40의 [普賢行願品]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독자적 漢譯詩임을 볼 수 있다.

廣修供養頌	넓게 공양의 공덕을 닦는 노래
至誠明照仏前灯	지성으로 부처님 전 등불을 밝히오니
願此香籠法界興	이 香烟이 法界서도 피어오르기 원하옵니다.
香似妙峯雲覆蓋[2]	향은 오묘한 산봉우리에 구름이 피어오르듯 하고,
油如大海水洪澄	기름은 큰 바다에 물결이 일렁이듯 합니다.
攝生代苦心常切	중생을 건지고 그 괴로움 대신할수록 이 마음은 매양 간절해지고,
利物修行力漸增	만물을 이롭게 하고 수행을 닦을수록 나의 힘은 점점 불어갑니다.
餘供取齊斯法供	나머지 공양이 요 法供養에 맞서려 하고
直饒千萬總難勝	천만가지 다 대어도 이길 것은 없으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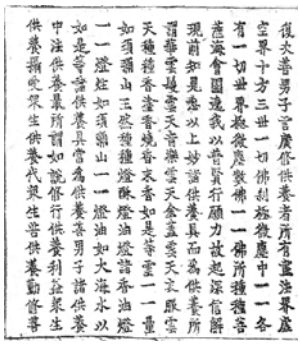


(崔喆·安大會 1986:67) (敎分通抄第十卷 25:28-31)

2.3. ≪華嚴經≫ [普賢行願品]의 <廣修供養願>과 偈頌

四十화엄 ≪華嚴經≫ 권40 實函의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약칭 [普賢行願品])에는 普賢菩薩이 善財에게 열 가지 行願에 대해 말해 주고 있는데, 이 중 세 번째가 다음과 같은 <廣修供養願>이다.

復次 善男子 言廣修供養者 所有盡法界虛空界 十方三世一切佛刹極微塵中 一一各有一切世界極微塵數佛 一一佛所 種種菩薩海會圍遶 我以普賢行願力故 起深信解現前知見 悉以上妙諸供養具 而爲供養 所謂華雲鬘雲 天音樂雲 天傘蓋雲 天衣服雲天種種香塗香燒香末香如是等雲 一一量如須彌山王 然種種燈酥燈油燈諸香油燈一一燈炷 如須彌山 一一燈油 如大海水以如是等諸供養具 常爲供養 善男子 諸供養中法供養最 所謂如說修行供養 利益衆生供養 攝受衆生供養 代衆生苦供養 勤修善



≪華嚴經≫ 권40 제2폭 13-24행

根供養 不捨菩薩業供養 不離菩提心供養 善男子 如前供養 無量功德 比法供養 一念功德 百分不及一 千分不及一 百千俱胝那由他分 迦羅分 算分 數分 譬分 優婆尼沙陀分 亦不及一 何以故以諸如來尊重法故 以如說修行出生諸佛故 若諸菩薩行法供養則得成就供養如來 如是修行 是眞供養故此廣大最勝供養 虛空界盡 衆生界盡 衆生業盡 衆生煩惱盡 我供乃盡 而虛空界乃至煩惱不可盡故 我此供養 亦無有盡 念念相續無有閒斷 身語意業無有疲厭



≪華嚴經≫ 권40 제3폭 1-11행

2)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𩅦'는 실제로 '雲'과 '帶'가 좌우로 결합된 이체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또 선남자여,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시방 삼세 모든 세계의 티끌 속에 낱낱이 모든 세계의 티끌 수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계신 데마다 가지가지 보살 대중이 둘러 모신 것을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눈앞에 계신 듯이 깊이 믿으며, 앞에 계신 듯이 뵈옵고 모두 훌륭한 공양거리로 공양하나니, 이른바 꽃구름·화만구름·하늘 음악구름·하늘 일산구름·하늘 의복구름과 여러 가지 하늘 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과 가루 향 따위의 구름이 낱낱이 크기가 수미산 같으며 여러 가지 등을 켜는데, 우유 등·기름 등·향유 등 따위가 심지는 수미산 같고, 등의 기름은 바닷물 같은 이러한 공양거리로 항상 공양하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으뜸이니, 말씀한 대로 수행하는 공양,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 중생들을 거두어 주는 공양,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선근을 닦는 공양,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선남자여, 앞에 말한 여러 가지로 공양한 공덕을 법공양에 비교하면, 잠깐 동안 법공양 한 공덕보다 백분의 일도 되지 못하고, 천분의 일도 되지 못하고, 백천구지 나유타분의 일도, 가라분의 일도, 산분(算分)의 일도, 수분(數分)의 일도, 비유분의 일도, 우바니사타분의 일도 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은 법을 존중하는 연고며, 말씀한 대로 수행함이 부처님을 내는 연고며, 만일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니, 이렇게 수행함이 진실한 공양인 연고니라. 이 넓고 크고 훌륭한 공양은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의 세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면 나의 공양이 끝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공양도 끝나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아니하지마는,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조금도 고달프거나 만족하지 않느니라. [한글대장경 華嚴經(40卷本) 제四十권 五九二(598쪽)]

또한 뒤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偈頌 역시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以諸最勝妙華鬘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든 화만과
妓樂塗香及傘蓋 좋은 풍류 바르는 향 온갖 일산과
如是最勝莊嚴具 이와 같이 훌륭하온 공양거리로
我以供養諸如來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最勝衣服最勝香 가장 좋은 의복들과 가장 좋은 향
末香燒香與燈燭 가루향과 사르는 향 등과 촛불이
一一皆如妙高聚 하나하나 수미산과 같은 것으로
我悉供養諸如來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我以廣大勝解心 넓고 크고 잘 깨닫는 이내 맘으로
深信一切三世佛 삼세의 모든 여래 깊이 믿삽고
悉以普賢行願力 보현보살 행과 원의 위신력으로
普徧供養諸如來 두루두루 부처님께 공야하오리
[한글대장경 華嚴經(40卷本) 제四十권 五九八(604쪽)]



≪華嚴經≫ 권40
제10폭 8-13행

지금까지 살펴본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와 그 관련 자료들의 상관성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향가 <廣修供養歌>	한역시 <廣修供養頌>	화엄경	
		<廣修供養願>	偈頌
火條執音馬	至誠明照仏前灯		
仏前灯乙直体良焉多衣	〃		
灯灶隱須弥也	香似妙峯雲靉靆	一一燈炷 如須彌山	一一皆如妙高聚
灯油隱大海逸留去耶	油如大海水洪澄	一一燈油 如大海水	

手焉法界毛叱色只爲旀	願此香籠法界興		
手良每如法叱供乙留			
法界滿賜仁仏体		所有盡法界 虛空界 … 有一切世界極微塵數佛	我以供養諸如來 我悉供養諸如來
仏仏周物叱供爲白制		悉以上妙諸供養具 … 常爲供養	以諸最勝妙華鬘 … 我悉供養諸如來
阿耶 法供沙叱多奈	餘供取齊斯法供	善男子 諸供養中 法供養最 … 不離菩提心供養	悉以普賢行願力 普徧供養諸如來
伊於衣波最勝供也	直饒千萬惚難勝	善男子 如前供養 無量功德 … 亦不及一	

3. <廣修供養歌> 해독의 비판적 검토

3.1. 火條執音馬

① 火箸를 잡음에 <小倉進平>
② 브져 자ᄇᆞ며 <梁柱東>
③ 브져 자ᄇᆞ며 <池憲英>
④ 불가락 자ᄇᆞᆷ마 <홍기문>
⑤ 브져 잡ᄋᆞᆷ 말 <李鐸>
⑥ 불고지 자ᄇᆞ ᄇᆞᆯ <정렬모>[3]
⑦ 브져 잡오매 <金善琪>
⑧ 火條 잡으매 <金俊榮>
⑨ 블줄 자ᄇᆞ마 <金完鎭>
⑩ 블뎌 주므르마 <兪昌均>
⑪ 붚가락 잡음아 <姜吉云>
⑫ 불가락 자ᄇᆞᆷ마 <류렬>
⑬ 블 긴 쥠마 <최남희>
⑭ 횃불 잡아 <박재민>

3) 정렬모(1965)의 경우 <獻花歌>의 '執音'에 대해서는 두 글자를 모두 음독해 이것이 어간 '짐-'을 나타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해독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즉 이때의 '音'은 어간 '짐-'의 'ㅁ'을 표기한 것이 된다.

'火條'에 대한 해독은 크게 '브져, 블뎌, 불/붎가락[火箸]'과 '불고지(불꽂)', '블줄(불줄)/블 긴(불 끈)', '횃불'로 나뉜다. '브져' 계통은 金完鎭(1980:170)의 지적대로 한자어 '火箸'가 있음에도 이를 굳이 '火條'로 적은 점이 문제가 되며, '불고지'는 漢譯詩에 있는 '明照'에 착안한 해독으로 보이나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다. 이들에 대해 '條'를 '줄'로 본 '블줄'은[4] 佛像 앞 천정으로부터 내려진 줄에 매달린 燈을 연상한 해독이라는 점에서 그 착상이 흥미롭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박재민(2002:78)에서 제시한 '횃불'[炬]은 燈供養과 관련해 '或以竹木爲炬明 以能然此諸燈明'(혹은 대나무와 나무로 횃불을 만들어 이 모든 燈을 태워 밝힐 수 있어)라는 ≪華嚴經 60≫의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火條'가 어떻게 횃불을 의미하는 단어가 될 수 있는지, 더불어 횃불로 燈을 밝힌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현재로서 필자는 '火條'를 글자 그대로 '불가지' 정도의 의미를 지닌 한자어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 구에 나오는 '直体'(*고티-[改])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火條'는 잦아든 등불의 심지를 곧추세우는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리라 생각한다.

'執音馬'의 해독은 대체로 '執'의 대표적 훈이 '잡다'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때 '執音'은 <獻花歌> 제2구의 '執音乎手'의 '執音'과 관련되고 있어 주목된다.[5] '執音'의 해독과 관련해 가

---

4) '블줄'은 그 형태와 관련해 'ㄹ'탈락의 발생 시기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여러 해독 중 '부져'의 경우는 'ㄹ'탈락이 반영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ㄹ'탈락의 발생 시기를 14세기경으로 볼 때 이는 적절하게 재구된 형태라고 볼 수 없다.

5) 참고로 '執音乎手'에 대한 기존의 해독들은 다음과 같다.
① 잡온 손(애), ② 자ᄇᆞ온손, ③ 자ᄇᆞ온(손), ④ 자ᄇᆞ모손, ⑤ 잡을 손, ⑥ 지몬 손, ⑦ 잡온 손, ⑧ 잡온손, ⑨ 자ᄇᆞ몬손, ⑩ 줌은 손, ⑪ 자브몬, ⑫

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차자 '音'의 존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차자표기에서 '音'은 말음 'ㅁ'을 적는 대표적인 차자로서 특별히 훈독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서든 '音'이 'ㅁ'으로 반영되지 않은 해독은 수긍하기 어렵다. 문제는 '執音'의 '音'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견해는 대부분 명사형어미이거나 어말어미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持續態의 접미사(⑨)나 현재진행상선행어미(⑪), 또는 어간의 일부(⑩)로 보는 견해도 찾아볼 수 있다.[6] '執音馬'의 '馬'가 연결 어미 '-아/어'를 포함한 형태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執音'을 명사형어미나 어말어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7] 또한 '音'을 持續態나 進行相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려는 입장의 경우 국어 문법사의 관점에서 매우 특이한 처리가 되므로 일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이러한 쓰임을 보여주는 '音'의 용법을 만나지 못했다.

필자는 '執音馬'의 '音'에 대해 차자표기의 표기 양상을 고려할 때 이것이 어간의 일부로 처리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執音'은 訓主音從의 전형적인 경우가 되며, 뒤따르는 '馬'는 어간의 말음이 음절 구성과 관련해 한 번 더 표기된 경우로 보는 것이다. 즉, '執音'은 [執]의 뜻을 지니며 'ㅁ'을 말음으로 갖는 용언의 어간으로, '馬'는 선행 어간의 말음 'ㅁ'과 연결 어미 '-아/어'가 결합된 형태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執]의 뜻을 지니며 'ㅁ'을 말음으로 갖는 용언의 어간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우리는 兪昌均(1996:270)에서 제시한 '줌-'에 주목하게

자ᄇᆞᆫ손

6) 최근 南豊鉉(2010)에서는 <獻花歌>의 '執音乎手'를 '잡ᄋᆞᆷ 혼 손'으로 해독하고 이때 '-音/ㅁ'이 연결 어미 또는 부사형 어미로 쓰였음을 주장했다.

7) 몇몇 해독들에서 '馬'를 의도나 약속의 의미를 지닌 종결어미 '-마'로 보기도 했는데, 이는 문맥상 자연스러운 해독이라고 보기 어렵다.

된다.[8] '잡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이러한 '*줌다'의 존재는 중세국어에서는 직접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먹[拳]'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주먹'은 명사 '줌'에 접미사 '-억'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되는데,[9] 국어의 역사에서 명사와 용언 어간이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일련의 예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참고된다.[10] 하지만 '*줌다'와는 별도로 나타나는 '쥐다'의 존재를 고려할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한편, 명사와 용언 어간 사이의 관련성을 참고할 때, 우리는 명사 '봄/뼘[坼]'에 대한 동사 '*봄다'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11] '봄/뼘[坼]'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벌렸을 때에 두 끝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말로 현대어 '뼘'에 연결된다. 또한 현대어에 이것의 동사인 '뼘다'가 있음을 볼 수 있고, 특히 제주 방언에서는 이것이 '뽐다'로 나타나고 있어 '*봄다'의 존재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사 '뼘다'의 의미가 '뼘으로 물건의 길이를 재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火條'를 목적어로 갖는 '執音馬'의 해독으로 '*봄다'를 상

8) 兪昌均(1996:914-915)은 <廣修供養歌>의 해독에서 '줌'과 더불어 '주므름'도 가능한 해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최남희(1986)에서는 '*쥠'을 제시하고 '쥐무로다>주무르다'의 변화에 의거해 '쥠다>쥐다'의 변화를 가정했다.

9) '주먹'은 '터럭'(털+-억), '뜨럭'(뜰+-억), '쪼각'(쪽+-악), '주걱'(죽[飯糝]+-억)과 같이 명사에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접미사 '-억'이 결합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홍윤표 2009 참조). 참고로 15세기 문헌자료에서 '주먹'은 '주머귀'로도 나타나고 있어 '줌+-어귀'의 결합 구조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0) ᄀᆞᄆᆞᆯ[旱]~ᄀᆞᄆᆞᆯ다, ᄀᆞᆶ[竝]~ᄀᆞᆶ다, 깃[巢]~깃다, 너출[蔓]~너출다, 누비[衲]~누비다, 되[升]~되다, ᄯᅴ[帶]~ᄯᅴ다, 신[履]~신다, 빗[櫛]~빗다, 품[懷]~품다, ᄇᆡ[腹]~ᄇᆡ다, 심[泉]~심다 등. 이밖에 김완진(2000:195-196)에서는 동사 'ᄉᆞᇙ다[哀]'에 대한 명사 '*ᄉᆞᇙ'의 존재를 상정하기도 했다.

11) 이는 구결학회 월례발표회에서 필자의 발표를 들으셨던 서울대 이현희 선생님의 조언에 힘입은 것이다. 명사 '봄/뼘[把]'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ᄒᆞᆫ 봄 ᄐᆡᆨ 坼 <훈몽자회_초간 하:15a>, 그저 ᄒᆞᆫ 뼘 기릐ᄅᆞᆯ 견초와 ᄆᆞᆫ처(比着只一把長短鉸了) <박통사언해 상:35a>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執音馬'의 해독에서 어간 말음이 'ㅁ'인 적합한 용언 어간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의미를 고려할 때 '*봄다'보다는 '*줌다'가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동사 어간 '*줌-'을 가정하면 '執音馬'는 '줌-[執] + -어(연결 어미)'의 형태론적 구성을 갖는 '주머'(잡아) 정도로 해독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1구는 우선 '火條 주머'(불가지 잡아) 정도로 해독해 두기로 한다.

3.2. 仏前灯乙直体良焉多衣

① 부텨 앏 등잔ᄋᆞᆯ 고티ᄂᆞᆫ대 <小>
② 佛前燈을 고티란ᄃᆡ <梁>
③ 佛前燈을 고티란대 <池>
④ 블전등을 고티란대 <홍>
⑤ 븓젼등을 곧ᄋᆡ안 ᄃᆞᄋᆡ <李>
⑥ 불전등을 고티란다에 <정>
⑦ 뿔젼 등을 고텨란 까이 <琪>
⑧ 佛前燈을 고텨언대 <榮>
⑨ 佛前燈을 고티란ᄃᆡ <鎭>
⑩ 佛前燈을 고텨란대 <兪>
⑪ 블전등을 고툐란데 <姜>
⑫ 불젼등을 고티란다히 <류>
⑬ 佛前灯을 고디란ᄃᆡ <최>
⑭ 佛前燈을 지피온대 <박>

'仏前灯乙'은 해독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仏前灯'을 한자어 그대로 읽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말로 풀어 읽은 것인지의 여부와 더불어 '仏'과 '灯'의 異體 문제 정도가 논의될 수 있을 듯하다. 더불어 목적격 조사 '乙'의 쓰임이 향찰에서는 주로 均如의 향가에서 지배적이라는 점도 언급될 만하다. 최근 황선엽(2008)에서 ≪三國遺事≫와 ≪均如傳≫ 소재의 향찰 表記字가 지닌 차이에 대해 논의했는데, 논의 내용 중 '肹, 乙; 矣, 衣'의 차이에 대한 언급은 이미 借字表記의 格과 助詞에 대해 살폈던 金裕範(1999)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12] '仏前灯乙'에 대해 필자는 일단 한자어를 그대로 읽어 '佛前燈'을로 해독해 두기로 한다.

'直体良焉多衣'의 해독은 대체로 '直体'를 동사 '고티-[改]'의 어간으로 봄에 있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良焉多衣'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13] '良焉多衣'는 이제까지의 해독에서 주로 형태상으로는 15세기 국어의 '-란ᄃᆡ'와 연관되었고, 의미상으로는 배경이나 전제를 뜻하는 '-는데'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15세기의 '-란ᄃᆡ'가 원인이나 이유를 뜻하는 연결 어미라고 볼 때,[14] 형태와 의미가 서로 괴리를 보이는 불완전한 해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2000)에서는 이러한 반성을 출발점으로 '良焉多衣'를 '-언대', 즉 '良(-어-:확인법) + 焉多衣(-ㄴ대:연결어미)'로 보고 15세기 '-ㄴᄃᆡ' 또는 '-ㄴ대'에 기대어 그 의미는 배경이나 전제의 '-는데'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기존 해

12) 특히 '肹'과 '乙'의 차이를 논의한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그동안 '肹'과 '乙'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肹'은 聲母에 'ㅎ'음을 갖는다는 점에서 선행 체언이 'ㅎ' 말음을 가진 경우에 사용된 借字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6-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는 '地(ᄯᅡㅎ)', '一等(ᄒᆞᄃᆞᆫㅎ>ᄒᆞ나ㅎ)' 정도만이 'ㅎ'종성 체언이고 (6-나)에서는 중세국어에서 'ㅎ'종성 체언인 '卯(알ㅎ)', '道(길ㅎ)'의 경우에도 대격조사로 '乙'이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肹'과 '乙'이 선행 체언이 'ㅎ'종성 체언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되어 쓰인 것이 아님을 말한다. 이 문제는 자료상에 나타난 '肹'과 '乙'의 편재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肹'은 『삼국유사』 소재 향가에서, '乙'은 『균여전』 소재 향가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향찰의 대격조사 표기에 있어 '肹'은 古形의 차자이고 '乙'은 新形의 차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향가 중 가장 오래된 <서동요>에 나타나는 두 번의 '乙'은 본래 '肹'로 되어 있던 것이 傳寫의 과정에서 '乙'로 적힌 것으로 이해된다.(金裕範 1999:544-545)

13) '良焉多衣'에 대한 이후의 논의는 김유범(2001)의 논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14) '-란ᄃᆡ'의 의미는 기존에 '조건'이나 '가정'으로 생각되었었는데, 鄭在永(1996)과 이용(2000)에서는 이를 '원인'이나 '이유'로 파악하였다. 한편, 최동주(1996)에서는 '-란ᄃᆡ'가 '-ㄹ씨', '-ㄴ대'와 함께 뒤 절 상황의 '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독에서 보여준 형태와 의미상의 괴리를 극복하는 한편, 차자 '良'을 확인법 선어말어미 '-어-'로 파악해 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해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焉多衣'를 15세기와 동일한 형태인 '-ㄴ대'로 바로 연결시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ᄃᆡ' 형태를 표기한 차자가 석독구결에서 'ム'로 나타났던 것에 비해(cf. 有七ㄹㄱム), '대' 형태를 표기한 '大'의 경우는 음독구결에 와서야 비로소 나타난다는 사실(cf. 如我思惟ノㄱ大)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良焉多衣'를 '-언대'로 읽는 것은 '-ᄃᆡ'와 '-대'의 이러한 역사적 출현 시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焉多衣'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ㄱㅣ十'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ㄱㅣ十'는 '-ㄴ 다히'를 표기한 것으로 그 의미는 '~할 때에'로 파악되는데,[15] <廣修供養歌>의 '良焉多衣'는 ≪華嚴經疏≫의 '-ㄷㄱㅣ十'와 그 형태론적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16] 이렇게 볼 때 '焉多衣'는 '-ㄴ 다히'로 읽히고 그 의미도 '~할 때에'로 이해된다. 이때 '多'는 석독구결의 'ㅣ'와 같이 시간성 의존명사 '다'가 된다. 이처럼 '多'를 어미의 일부가 아닌 의존명사 '다'로 파악함으로써 '直体良焉多衣'에 대해 기존의 해독들과는 다른 '고티언 다히'(고칠 때에)라는 새로운 해독 가능성을 찾아보게 된다.[17] 그러므로 제2구는 '佛前

15) '焉多衣'의 '衣'와 'ㄱㅣ十'의 '十(中)'의 차이는 처격조사의 新形(-히/의)과 古形(-히/희)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裕範(1999)를 참조할 수 있다.

16) ≪華嚴經疏≫에서 볼 수 있는 'ㄷㄱㅣ十'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與ソロハ乙立ソㄷㄱㅣ十 <화소 10:08>, 施ソロハ乙立ソㄷㄱㅣ十<화소 11:01>, 受七亻ソㄷロしヲㅣソㄷㄱㅣ十 <화소 11:11>, 爲入しソロハ乙立ソㄷㄱㅣ十 <화소 11:20>, 令ㅁロハ乙立ソㄷㄱㅣ十 <화소 16:01>

17) 兪昌均(1996:917)에 따라 '佛體'가 '부텨'임을 통해 '直体'에서 '体'의 代用音을 '텨'로 보면, '直体'만으로도 어간 '고티-'에 선어말어미 '-어-'가 결합된 '고텨'가 될 수 있으므로 '直体良'은 표기상 '고텨어', 즉 선어말어미가 한 번 더 표기된 경우가 된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다면 '直体良焉多衣'에 대한

燈을 고텬 다ᄋᆡ'(佛前燈을 고칠 때에)로 해독해 볼 수 있다.[18]

3.3. 灯炷隱須弥也

① 등잔 심지ᄂᆞᆫ 須彌요 <小>
② 燈炷는 須彌여 <梁>
③ 燈炷는 須彌여 <池>
④ 등주는 수미야 <홍>
⑤ 燈炷는 須彌여 <李>
⑥ 등주는 수미라 <정>
⑦ 심지는 수미야 <琪>
⑧ 燈炷은 須彌여 <榮>
⑨ 燈炷는 須彌여 <鎭>
⑩ 燈炷는 須彌라 <兪>
⑪ 호롱불 심진 수미여 <姜>
⑫ 등듄 슈미라 <류>
⑬ 灯炷는 須彌야 <최>
⑭ 燈炷는 須彌여 <박>

'灯炷隱須弥也'는 '灯'의 異體 문제 및 '灯炷'와 '須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를 별도로 한다면 '也'의 독법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박영준(1996)에 따르면 향찰에서 '也'는 모두 27회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해독자에 따라 그 독법과 기능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19]

보다 정확한 재구 형태는 '고텬 다ᄋᆡ'가 될 것이다.

18) 최근의 논의인 張允熙(2010)에서도 이 구절을 "佛前燈을 고치는 때에"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고, 석독구결의 '-ㄱㅣㅓ'나 향가의 '-焉多衣'로부터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은대'가 형성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19) 박영준(1996)에서는 '也'가 사용된 향가의 용례(정체가 뚜렷하지 않은 6개의 용례는 보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용법을 '감탄문 종결어미, 감탄조사, 호격조사, 처격조사, 감탄사, 부사형어미' 등으로 한정하여 언급한 반면, 세밀한 독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참고로 <廣修供養歌>의 '灯炷隱須弥也'에 사용된 '也'에 대해서는 연결 어미 '-여'로 파악했음을 볼 수 있다.

(1) 향찰 '也'의 독법과 기능에 대한 기존 견해

가. 독법[20]

야, 여, 라, 오, 요, 의, 이, 에, 애, 얘, 예, 읻, 의, 어, 아, 로, 롸, ㄹ, 녀, 도, 이라, 이랴, 이아, 이야, 이여 등

나. 기능

조사(호격, 주격, 속격, 처격, 지정격, 특수조사, 접속조사 등), 종결어미(감탄문 종결어미, 의문문 종결어미,명령문 종결어미 등), 관형사형어미, 부사형어미, 연결어미, 감탄사 일부, 명사 일부, 부사 일부, 용언 어간, 용언 어간 일부, 말음첨기, 여음, 음조상 첨기 등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을 보면 향가 해독이 얼마나 至難한 길인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필자는 다음 제4구와의 對句적인 관계를 고려해 제3구에 사용된 '也'의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음 역시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4. 灯油隱大海逸留去耶

① 등잔기름은 大海 일과라 <小>
② 燈油는 大海 이루가라 <梁>
③ 燈油는 大海 이루가라 <池>
④ 등유는 대해 일우고야 <홍>
⑧ 燈油은 大海 일우가라 <榮>
⑨ 燈油는 大海 이루거야 <鎭>
⑩ 燈油는 大海 이로가라 <兪>
⑪ 등윤 대해 일우가라 <姜>

---

20) '也'의 다양한 독법과 관련해 시대에 따른 재구음의 발달 양상(兪昌均 1996:318)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上古	前漢	後漢	魏晋	南北	中古
也	djiag	djiaï	rjia	jia	ja	ja
	다	다	라	야	여	여

⑤ 燈油는 大海 일아라 <李>
⑥ 등유는 ᄃᆡ히 이루거야 <정>
⑦ 등유난 때해 이루가라 <琪>
⑫ 등윤 대히(한바를) 이루가라 <류>
⑬ 灯油는 大海 일우가라 <최>
⑭ 燈油는 大海 이루거라[21] <박>

'灯油隱大海逸留去耶'는 바로 앞 3.3.의 '灯炷隱須弥也'와 對句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22] 이런 이유로 이 두 句를 함께 놓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2) 가. 【灯炷】隱【須弥】也 【灯油】隱【大海】 逸留去耶
나. 【 A 】隱【 C 】也 【 B 】隱【 D 】 逸留去耶

(2)는 원관념인 A, B가 각각 보조관념인 C, D와 은유의 짝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A-C'와 'B-D'가 서로 對句的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A-C'와 'B-D'는 서로 접속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也'는 감탄 조사보다는 체언 '須弥' 뒤에 붙은 접속 조사나 계사 뒤에 붙은 연결 어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속 조사로 볼 경우 이때의 '也'는 명사구 나열에 사용되는 석독구결의 접속 조사 'ㅅ'나 중세국어의 접속 조사 '-이여'와는 분명히 그 성격이 다르고,[23] 계사 뒤에 사용되는 연결 어미 '-요'와 관련짓기에는 독법

21) 박재민(2003:155 각주10)에서는 이때의 '-거라'를 고려시대에 소멸된 감탄형 어미로 보고 「동동」 중 '二月ㅅ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ㅅ블 다호라, 六月ㅅ보로매 아으 별해 ᄇᆞ룐 빗 다호라'의 '오라'와 연관된 형태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때 '다호라'는 1인칭 주어를 갖는 서술어로서 '다ᄒᆞ-[如] + -오-(인칭법 선어말어미) + -라(종결어미)'의 구성으로 이해되므로 '오라' 전체를 감탄형 어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2) 2.3.의 정리표 및 박재민(2003:156-157)의 언급처럼 <廣修供養歌>의 제3, 4구는 다음과 같이 對句的인 특성을 지닌 ≪華嚴經≫ <普賢行願品>의 '廣修供養願'과 대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廣修供養歌] 灯炷隱 須弥也 灯油隱 大海逸留去耶 (균여전)
[廣修供養願] 一一燈炷 如須彌山 一一燈油 如大海水 (화엄경)

의 문제는 물론 출현 시기와 관련해 역사적 연계성을 맺기 어려운 점이 있다.[24)]

한편, '逸留去耶'는 그동안 이것이 명령문인지의 문제와 더불어 '逸留'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박재민(2003), 김지오(2010)과 같은 최근의 논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독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3) 가. ≪華嚴經≫ 과 최행귀의 한역시 모두 '成'의 의미가 없고, 두 자료에서 각각 '燈炷如…燈油如…'와 '香似', '油如'처럼 對句性이 강하게 나타난다. '逸留去耶'의 '去耶'는 명령형의 어미가 될 수 없고 문맥으로 보자면 오히려 영탄의 '-구나'에 더 충실히 부합함을 본다(박재민 2003).

나. '逸留去耶'는 동사 '일-[成]'에 명령형 종결어미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계사 '이'에 감탄의 종결어미가 연결된 것으로, 중세국어의 '-게라'와 연결되는 형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김지오 2010).

(3)은 '逸留去耶'가 명령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23) 석독구결에서 명사구들의 접속을 담당하는 접속 조사 'ᄉᆞ'는 뒤아우름의 동사 'ᄒᆞ-'가 거의 항상 사용되는 반면(박진호 1998), 중세국어에서 명사구를 나열하는 데 쓰이는 '-이여'는 그 뒤에 'ᄒᆞ-'가 오는 일이 없다는 점(이현희 1995)에서 차이를 보인다.

24) 오늘날 '이다'와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 어미 '-요'는 본래 '-고'에서 'ㄱ'이 탈락된 '-오'에 계사에 의한 '이'모음순행동화의 결과로 활음 'j'가 첨가된 형태이다. 즉 '-요'는 다른 경우들처럼 'ㄱ'탈락 현상의 소멸로 인해 다시 'ㄱ'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길을 걷지 않고 '이'모음순행동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의 출현은 18세기 중엽 이후의 일임을 볼 수 있다. 연결 어미 '-요'의 출현에 대해서는 김유범(2008)을 참조할 수 있다.

관점에서 '逸'이 동사 '일-[成]'과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이 명령 표현이 아니라는 점은 詩想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逸'을 동사 '일-[成]'이 아닌 계사와 관련짓기 위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逸留去耶'가 계사의 활용형이라고 볼 때 '逸' 뒤의 '留去耶'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김지오(2010)은 (3-나)와 같은 견해를 바탕으로 <懺悔業障歌>의 '逸耶'를 계사와 원인-이유의 연결 어미가 결합된 '이라(서)' 해독했으나, 동일한 관점으로 '逸留去耶'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김지오(2010)에서처럼 계사의 기원형을 '*ir-'로 처리하는 견해를[25] 따른다면 '留' 속의 '오/우'를 어떤 형태소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去耶'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均如의 또 다른 향가인 <總結無盡歌>의 다음 구절을 참조해 볼 수 있다.[26]

(4) 向乎仁所留善陵道也 아온딕로 ᄆᆞᄅᆞ 길히여,
伊波普賢行願 뎌바 普賢行願
又都仏体叱事伊置耶 ᄯᅩ 부텻 이리도야

(4)는 <總結無盡歌>의 6~8구에 해당하는데, 6구와 8구의 끝부분이 지금 살피고 있는 <廣修供養歌>의 3, 4구 '灯灶隱須弥也 灯油隱大海逸

25) 계사의 기원형을 '*ir-'로 처리하는 견해는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지닌 부분도 있지만, 이두나 석독구결 자료들에서 계사 뒤에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된 경우 'ㄹ'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이두에서 계사 뒤의 연결 어미 {-어}가 'ㄹ' 없이 표기된 것을 볼 때, 이 역시 완전한 설명력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유범(2007나:336-348)을 참조할 수 있다.

26) 이에 대한 해독은 金完鎭(1980)을 참조했다.

留去耶'의 끝부분과 구조 및 구성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밑줄 친 '伊置耶'와 '逸留去耶'가 모두 계사의 활용형이라면 '置'와 '留'는 각각 이른바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와 '-로-'가 될 수 있으며, '耶'와 '去耶'의 대응을 통해 이른바 확인법 선어말어미 '去'를 추출해 낼 수 있다.[27] 이때 같은 계사 뒤에 감동법 선어말어미의 형태가 '-도-'와 '-로-'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문제, 그리고 감동법 선어말어미 뒤에 확인법 선어말어미가 뒤따르는 결합 순서상의 문제가 제기된다.[28] 전자는 均如의 향가에서 계사 뒤에 감동법 선어말어미의 형태로 '-도-'와 '-로-'가 모두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나,[29] 후자는 그냥 중세국어 이전의 질서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설명의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30]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逸留去耶'를 계사의 활용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해독이라고 확신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해독들처럼 '逸留-'를 '일-[成]'의 사동형 '일오/우-'로 보고[31] 여기

---

27) (3-나)에서처럼 '去耶'를 중세국어의 '-게라'와 연결되는 형태로 파악할 경우 '-게라'의 감탄적 의미가 <廣修供養歌> '去耶'의 의미와 같은 것인지와 더불어 중세국어에서 '-게라'는 '몯게라'라는 한정된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특성까지도 함께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8) 'ᄒᆞ과소라, ᄒᆞ것가, ᄒᆞ야ᄉᆞ라'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확인법 선어말어미가 감동법 선어말어미에 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安秉禧·李珖鎬(1990:236)에서 제시한 중세국어 선어말어미들의 배열 순서는 다음과 같다. 겸양(ᄉᆞᆸ)-과거(거‖더)-존경(시)-현재(ᄂᆞ)-의도(오)-미래(리)-감탄(돗)-공손(이)

29) 又都仏体叱事伊置耶(또 부텻 이리도야) (총결무진가 8), 皆仏体置然叱爲賜隱伊留兮(모ᄃᆞᆫ 부텨도 그럿 ᄒᆞ시니로여) (상수불학가 8), 仏体頓叱喜賜以留也(부텨 ᄇᆞᄅᆞᆺ 깃그시리로여) (항순중생가 10). 필자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13세기 후반 이전에 일어난 'ㄷ>ㄹ' 변화의 형태음운론적 현상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30) 이승재(1998:63)에서는 고대 국어 선어말어미들의 배열 순서를 '어간-과거-겸양-확인-존경-강조-현재-의도-가능-어말어미'와 같이 제시했는데, 이때 '강조'가 감동법 선어말어미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31) '逸留'의 재구 형태와 관련해 金完鎭(1980)은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사동사 '*이ᄅᆞ/르다[成]'를 재구하였다.

에 '去耶', 즉 확인법 선어말어미 '去'와 어말어미 '耶'가 통합된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해독이라고 판단된다. 향찰 표기에서 '일우-'가 '成留'뿐 아니라 '逸留'로도 표기될 수 있는 것은 異表記의 존재라는 차자표기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에서 보았듯이 제3구와 제4구가 對句的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A-C'와 'B-D'가 계사 구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는 없다. 'A는 C요, B는 D(를) 이루었네.'라는 對句的인 관계도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詩歌의 문체상 이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을 듯하다. 이때 문제는 제3구의 '也'와 제4구의 '耶'가 지닌 독법과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독법은 그 결정이 쉽지 않은데, 잠정적으로 金完鎭(1980)의 입장처럼 '也'는 '여', '耶'는 '야'로 이들을 일관된 독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32] 또한 '也'는 감탄의 의미를 동반한 접속 조사로, '耶'

---

① 灯油隱大海**逸留**去耶(燈油는 大海 이루거야) (廣修供養歌 4)
: 일- + -**으**- + -우- + -거야

② 佛體叱海等**成留**焉日尸恨(부텻 바ᄃᆞᆯ 이론 나ᄆᆞᆫ) (普皆廻向歌 5)
: 일- + -**ᄋᆞ**- + -오- + -ㄴ

15세기 국어에서 '일오다/일우다'와 '이ᄅᆞ다/이르다' 두 유형의 사동사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①과 ②의 예로부터 재구해 낼 수 있는 어형은 '*이ᄅᆞ/르다'뿐 아니라 '*일오다/일우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金完鎭(1980)에서 이를 '*이ᄅᆞ/르다'로만 재구한 것은 차자 '逸留'와 '成留'를 '*일오다/일우다'로 재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비켜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①의 경우 '逸留'의 '留'를 만족시키는 것은 '일-'의 사역형 '이르-'에 '우'가 첨가된 '이루-'일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金完鎭 1980:171), 여기에 '우'가 첨가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필자는 오히려 ①과 ②의 예들이 '*일오다/일우다'로 재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차자 '逸留'와 '成留'는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15세기 국어에서 '일오다/일우다'의 실제 발음이 어떠했는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즉 ①과 ②의 예들은 '일오-/일우-'의 실제 발음이 '이로-/이루-'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추정케 한다(김유범 2007가:83 각주10 재구성).

32) 앞으로 '也'와 '耶'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邪',

는 감탄형 종결어미 정도로 그 기능을 파악해 두고자 한다.[33] 그러므로 제3, 4구는 '灯炷는 須弥여 灯油는 大海 일오거야'(燈炷는 須弥요, 燈油는 大海 이루었네) 정도로 해독해 볼 수 있겠다.

3.5. 手焉法界毛叱色只爲旀

① 손은 法界 밋두록 ᄒᆞ며 <小>
② 소ᄂᆞᆫ 法界 ᄆᆞᆺ도록 ᄒᆞ며 <梁>
③ 손은 法界 ᄆᆞᆺᄃᆞ록 ᄒᆞ며 <池>
④ 소ᄂᆞᆫ 법계 ᄆᆞᆺᄃᆞ로기 ᄒᆞ며 <홍>
⑤ 손은 法界 ᄆᆞᆫ받ᄒᆞ며 <李>
⑥ 소ᄂᆞᆫ 법계 못소기 ᄒᆞ며 <정>
⑦ 손안 봅개 몯고디 까며 <琪>
⑧ 손언 法界 ᄆᆞᆺᄃᆞ록 ᄒᆞ며 <榮>
⑨ 香은 法界 업ᄃᆞ록 ᄒᆞ며 <鎭>
⑩ 손은 法界 ᄆᆞᆺ도록 ᄒᆞ며 <兪>
⑪ 향은 법계 몾도록 허며 <姜>
⑫ 손은 법겨ㅣ마시ᄃᆞ로기 ᄒᆞ며 <류>
⑬ 소ᄂᆞᆫ 法界 못ᄃᆞ록 ᄒᆞ며 <최>
⑭ 소ᄂᆞᆫ 法界 두루 하며 <박>

제5구와 6구의 '手'는 崔行歸의 漢譯詩 <廣修供養頌> 및 ≪華嚴經≫ [普賢行願品]의 <廣修供養願>과 偈頌의 내용을 참조할 때, 金完鎭(1980)의 지적처럼 '香'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이후의 詩想은 法供을 실은 香煙을 따라 法界를 가득 채운 부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毛叱色只'는 대부분의 해독에서 동사 'ᄆᆞᆺ-(←ᄆᆞᇫ)'[盡]의 활용형으로 해독되었고, 訓主音從의 규범을 따른 金完鎭(1980)은 '毛'의 훈으로 '없-'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박재민(2003)에서는 禮敬諸佛歌의 漢譯詩에 나타나는 '遍十方', 구결의 '徧ㅁㅣ'를 근거로 이것의 의미를 '두루'로 제안했

'兮' 등을 서로 비교해 그 독법과 기능의 차이를 면밀히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3)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耶'라는 감탄형 종결어미가 다른 예에서도 나타나는지, 이것이 후대의 어떤 형태와 관련되는지, 또한 동시대나 이후의 자료들에서 선어말어미 '-거-'가 선행하는 예가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천착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차자 '耶'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으나 그 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毛叱色只'는 <禮敬諸佛歌>와 <隨喜功德歌>의 '毛叱所只'와 같은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色'은 '巴'의 잘못으로서(梁柱東 1965) '色只'는 'ᄃᆞ록, 드록, 드룩, 도록, 도로기, 두록, 다로기' 등으로 읽히는 이두의 '巴只' 및 석독구결의 '巴ハ'와 동일한 요소로 생각된다.[34]

(5) 가. 法界毛叱所只至去良 <禮敬諸佛歌 4>
仏伊衆生毛叱所只 <隨喜功德歌 3>
나. 限目亦 已過爲巴只 決斷不冬爲在乙良(已過爲ᄃᆞ록) <대명률직해 28:18b>
다. 斯毛ン巴ハ 何セン了 事し 作ンセインニトフリヨセロンヒハニか <구역인왕경 2:23>
佛土ヨ十 至リ 有緣ン了ラ十了 斯毛ン巴ハ 現ンヒハニ <구역인왕경 3:6>

이 중 (5-다)의 '毛ン巴ハ'는 아직까지도 미해독의 대상인데, 김양진(2007)은 이때의 '毛'를 중세국어의 보조사 '마'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의 강조형 '맛'이 사용된 '*毛セン巴ハ'(맛ᄃᆞ도록)으로부터 'ン'가 생략된 것이 均如의 향가에 나오는 '毛叱巴/所只'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 구의 '法界毛叱色只爲旀'를 '법계만큼토록 하며'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했다. 흥미로운 견해이기는 하지만 '毛'를 '마'로 읽어야 하는 부담이 가볍지는 않은 듯하다.

34) '巴只'가 당시에도 'ᄃᆞ록'으로 읽혔을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ᄃᆞ록'과는 '只'(ㄱ)만이 공통될 뿐 '巴'가 어떻게 'ᄃᆞ록'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南豊鉉(1985)에서 차자표기의 '巴'가 '包'에 소급되는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고, 최미현(2005)에서는 '巴'의 중고음 기층 한자음이 [바]인 반면 상고음 기층 한자음은 원순성을 지닌 음이었음을 논의한 바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고대 국어 시기에도 '巴只'가 반드시 'ᄃᆞ록'으로 읽혔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향가에 나타나는 '毛'가 주로 '毛冬, 毛如, 毛等, 毛達' 등과 같은 부정의 부사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며 대개 음독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毛叱色只'를 '못ᄃᆞ록' 정도로 읽고, 그 의미는 '두루'로 파악해 두기로 한다.[35] 그러므로 제5구는 '香ᄋᆞᆫ 法界 못ᄃᆞ록 ᄒᆞ며'(香은 法界 두루 하며)로 해독해 볼 수 있겠다.

3.6. 手良每如法叱供乙留

① 손애마다 法供ᄋᆞ로 <小>
② 소내마다 法ㅅ供ᄋᆞ루 <梁>
③ 손애마다 法ㅅ供ᄋᆞ루 <池>
④ 소내마다 법ㅅ공ᄋᆞ로 <홍>
⑤ 손애마ᄃᆞ 法ㅅ供으로 <李>
⑥ 소내마다 법ㅅ공ᄋᆞ로 <정>
⑦ 손라마다 봅콩으루 <琪>
⑧ 손애마다 法ㅅ供으로 <榮>
⑨ 香아마다 法ㅅ供으로 <鎭>
⑩ 손이라마다 法供으로 <兪>
⑪ 손애마다 법공으루 <姜>
⑫ 손아마다 법시공ᄋᆞ로 <류>
⑬ 소나마다 法ㅅ共ᄋᆞ루 <최>
⑭ 소내마다 法ㅅ供ᄋᆞ로 <박>

'手良每如'의 해독과 관련해 '手'는 제5구에서처럼 '香'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良每如'는 처격 조사 '良'(아) 뒤에 '每如'(마다)가 결합된 것으로 '마다'의 통합 환경이 중세국어와 달랐음을 보게 된다.[36] '手每如'가 아닌 '手良每如'로 되어 있는 점을 통해 향 하나하나에 깃든 法供의 모습을 부각시킨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法叱供乙留'에서 '乙留'는 매개모음이 개입된 '-ᄋᆞ로/으로'를 위한 표기인 것으로 보인다. 음독자 '留'는 ≪均如傳≫ 소재의 향가에만 나타나는데(金裕範 1999, 황선엽 2008), 구격 조사로 쓰인 '留'의 선행 체언은

35) 이때 '못ᄃᆞ록'이라는 어형이 '두루'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간 '못-(←ᄆᆞᄉᆞᆺ←ᄆᆞᄉᆞᆺ)'[盡]과 어미 '-ᄃᆞ록'이 결합된 '못ᄃᆞ록'이 '다하도록, 마치도록'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부터 '두루'의 의미를 파생시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36) 고대 국어 '마다'의 특성에 대해서는 박진호(1998:194)를 참조할 수 있다.

대부분 모음이나 'ㄹ'로 끝나고 있어 이때 '留'는 구격 조사 '-로'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37] 그러므로 '乙留'의 '乙'은 '-ᄋᆞ로/으로'의 모음 'ᄋᆞ/으'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표기였다고 생각된다. 결국 제6구는 '香아마다 法ㅅ供ᄋᆞ로'(香마다에 法供으로) 정도로 비교적 무난하게 해독해 볼 수 있겠다.

3.7. 法界滿賜仁仏体

① 法界 ᄒᆞ샨 부텨 <小>
② 法界 ᄒᆞ샨 부텨 <梁>
③ 法界 ᄒᆞ샨 부텨 <池>
④ 법계 ᄒᆞ샨 부텨 <홍>
⑤ 法界 ᄒᆞ손 븓ᄃᆡ <李>
⑥ 법계 ᄒᆞ샨 부텨 <정>
⑦ 봅개 차샨 부텨 <琪>
⑧ 法界 차샨 부텨 <榮>
⑨ 법계 ᄒᆞ신 부텨 <鎭>
⑩ 法界 ᄒᆞ샨 佛體 <兪>
⑪ 법계 차신(>ᄒᆞ신) <姜>
⑫ 법겨ㅣᄒᆞ신 부텨 <류>
⑬ 法界ᄒᆞ신 佛體 <최>
⑭ 法界 ᄒᆞ샨 佛體 <박>

'法界滿賜仁仏体'는 <禮敬諸佛歌>의 '法界滿賜隱仏体'와 동일한 대상으로서 '仁'과 '隱'의 대응 정도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 최남희(1986:131)의 지적대로 '仁'은 고려 향가에서만 사용된, 均如의 임의적인 차자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隨喜功德歌>의 '不喩仁'이 석독구결의 '不ᄉᆞᆺᄆᆡᄀᆞ'과 대응되는 사실을 '仁'을 '인'으로 읽을 수 있는 중요

37) 心未筆留(ᄆᆞᅀᆞᄆᆡ 부드로)(禮敬諸佛歌 1), 間王冬留讚伊白制(醫王ᄃᆞᆯ로 기리ᅀᆞᆷ져)(稱讚如來歌 8), 淨戒叱主留卜以支乃遣只(淨戒ㅅ 主로 디니ᄂᆞ곡)(懺悔業障歌 6), 煩惱熱留煎將來出米(煩惱熱로 다려내매)(請轉法輪歌 6), 大悲叱水留潤良只(大悲ㅅ 믈로 저적)(恒順衆生歌 3), 舊留然叱爲事置耶(녀리로 그럿 ᄒᆞ시도야)(普皆廻向歌 8), 向乎仁所留善陵道也(아온ᄃᆡ로 ᄆᆞᄅᆞ 길히여)(總結無盡歌 6), 伊留叱餘音良他事捨齊(뎌롯나마 他事 ᄇᆞ리져)(總結無盡歌 10). 이때 '心未筆留'의 경우에만 선행 체언('붇')이 자음으로 끝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남희(1986:20)에서는 '筆'을 '붇'이 아닌 '빌'로 읽을 것을 제안했다.

한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황선엽 2008:292), '懺爲如乎仁'(普皆廻向歌)이나 '向乎仁'(總結無盡歌)에서 볼 수 있듯이 均如 향가에서의 '仁'은 관형사형어미 'ㅡㄴ'을 표기하는 차자 '隱'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38] 제7구의 내용은 ≪華嚴經≫ [普賢行願品] <廣修供養願>의 앞부분 내용을 통해 法界에 있는 모든 세계의 티끌 수만큼의 부처를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독은 '法界 ᄎᆞ신 부텨'(法界에 가득하신 부처) 정도가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3.8. 仏仏周物叱供爲白制

① 佛佛에 周物을 供ᄒᆞᅀᆞᆸ제 <小>
② 佛佛 ᄃᆞᆺ 供ᄒᆞᅀᆞᆸ져 <梁>
③ 佛佛 들들ㅅ 供ᄒᆞᅀᆞᆸ져 <池>
④ 불불 두루 又 공ᄒᆞᅀᆞᆸ져 <홍>
⑤ 븓븓 ᄃᆞᆺ 供ᄒᆞᅀᆞᆯᄃᆞᆫ <李>
⑥ 불불 한물 공ᄒᆞᅀᆞᆸ져 <정>
⑦ 부텨마다 주물ㄷ 이바지 깔제 <琪>
⑧ 佛佛 周物ㅅ 供ᄒᆞᅀᆞᆸ져 <榮>
⑨ 佛佛 온갓 供 ᄒᆞᅀᆞᆸ져 <鎭>
⑩ 佛佛 온가짓 供ᄒᆞᅀᆞᆸ져 <兪>
⑪ 부텨 부텨마다 온갖공 허ᅀᆞᆸ져 <姜>
⑫ 불불 두루가시 공ᄒᆞᅀᆞᆸ져 <류>
⑬ 佛佛周物ㅅ供 ᄒᆞᅀᆞᆸ져 <최>
⑭ 佛佛 두루 物ㅅ供ᄒᆞᅀᆞᆸ져 <박>

제8구 역시 ≪華嚴經≫ [普賢行願品]의 <廣修供養願>과 偈頌의 앞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을 노래한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華鬘, 香, 日傘, 衣服, 燈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물건들[周物]로 부처께 供養을 올리는 것, 이것이 곧 '廣修供養'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周物叱供'에 대한 다양한 해독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제6구의 '法叱供'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때의 '周物'을 애써 풀어 읽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周物叱供'과 '法叱供'의 '叱'은 모두 사

38) 이런 점에서 <隨喜功德歌>의 '不喩仁'은 '不喩隱'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不喩'가 '안디'로 읽히므로 계사 '(ㅡ)이ㅡ'를 굳이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맥 속에서 '不喩隱'의 형태론적 구성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잇소리에 해당되므로 '周物叱'의 '叱'을 '周物'의 말음첨기자로 보는 입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爲白制'에서 '白'은 供養의 객체인 '仏仏'을 위해 쓰였고, '制'는 '齊'와 함께 均如의 향가에 사용된 종결어미인데, 그 정확한 의미를 확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박진호(2008:330)에서는 이를 청유의 의미로 파악해 중세국어의 청유형 종결어미 '-져'와 연결해 볼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는 'ᄒᆞ샤져'(하세) 정도로 해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제8구는 '佛佛 周物ㅅ供 ᄒᆞ샤져'(佛佛께 周物供養 하세)로 해독해 볼 수 있겠다.

3.9. 阿耶 法供沙叱多奈

① 阿耶 法供을사 만흐나 <小>
② 아으 法供ᄉᆞ아 하나 <梁>
③ 아으 法供ᄉᆞ아ㅅ 하나 <池>
④ 아야 법ㅅ공ᄉᆞ아 하나 <홍>
⑤ 아라 法供몯 하나 <李>
⑥ 아야 법공 삿다나 <정>
⑦ 아으 봅공사 까나 <琪>
⑧ 아- 法供삿 하내 <榮>
⑨ 아야, 佛供ᄉᆞ삿 하나 <鎭>
⑩ 아라 法供삿 하나 <兪>
⑪ 아라 법공삿 하나 <姜>
⑫ 아으 법시공사 하나 <류>
⑬ 아! 法供삿 하나 <최>
⑭ 아으 法供이야 하나 <박>

'阿耶'는 <讚耆婆郎歌>, <遇賊歌>, <總結无盡歌>와 동일하게 사용된 落句이다. '阿'와 '耶' 모두 음독자로서 감탄사 '아야'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法供沙叱多奈'에서는 '沙' 뒤에 쓰인 '叱'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많은 해독들에서 '沙'를 '法供' 뒤에 붙은 강세 보조사로 파악하고도 '叱'을 다시 강세 보조사 뒤에 붙은 요소로 봄으로써 그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해독들과는 달리 필자는 이 구절을 '法供沙'와 '叱多奈'로 나누고 이때의 '叱'은 어간 '잇-'의 'ㅅ'을, '叱多奈'는 '叱多爲奈'에서 '爲'가 생략

된 표기로 보아 '잇다ᄒᆞ나'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물론 어간 '잇-'의 말음첨기자에 해당되는 'ㅿ'만이 사용된 점, 어간 'ᄒᆞ-'(爲)는 생략되고 어미 '-나'(奈)만이 표기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39] 차자 'ㅿ'을 어간 '잇-'과 연관시켜 봄으로써 이 구절에서 'ㅿ'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제9구는 '法供사 잇다 (ᄒᆞ)나'(法供이야 있다고 하나) 정도로 해독안을 제시해 두고자 한다.

3.10. 伊於衣波最勝供也

① 이것바 最勝供이요 <小>
② 이 어의바 最勝供이여 <梁>
③ 이 어의ᄇᆞᆯ 最勝供여 <池>
④ 이어의 바 최승공야 <홍>
⑤ 이어ᄋᆡ버 最勝供여 <李>
⑥ 이어 니바 최승공이라 <정>
⑦ 이 오이바 최승콩이랴 <琪>
⑧ 이 어의바 最勝供여 <榮>
⑨ 뎌를 니버 最勝供이여 <鎭>
⑩ 이어의 바 最勝供이라 <兪>
⑪ 이 어의바 최승공여 <姜>
⑫ 이어히바 초ㅣ승공이라 <류>
⑬ 이 어의바 最勝供야 <최>
⑭ 이야말로 * 最勝供이여 <박>

'伊於衣波'에 대해 이를 감탄사로 해독하려는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보인 金完鎭(1980)의 해독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伊於'를 훈독하여 '뎌를'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於'를 훈독하여 목적격 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독 방안이 아니라는 점, 의미상 '伊於衣波' 뒤에 강세 보조사 '沙' 정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이 역시 정곡을 얻은 해석이 되기에는 부족함

39) 이와 관련해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ㅿ'을 존재동사 '잇-'에 대응시킨 것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하겠거니와 이 시기 상위문 인용동사의 어간만 생략되는 현상은 더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그 현상은 18세기 이후에야 보인다). 그러나 하위문의 어간을 제외한 어미구조체와 상위문 동사어간을 생략한 구조체는 15세기 한국어에 보이기는 한다. 좀 더 깊은 탐색이 요망된다.

이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伊於衣波'에서 '波'를 '沙'의 잘못으로 보아 '伊於衣沙'를 '이어긔사' 정도로 해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40] '伊於衣'를 모두 음독하고 '波'를 '沙'의 잘못으로 보아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伊於衣'를 보다 분명한 어형인 '이어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해독안이라 생각된다.

비록 法供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드리는 法供이야말로 眞正한 法供[最勝供]이라는 의미로 제9구와 10구의 내용을 파악해 본다면, 이때 '이어긔'는 娑婆世界인 이승[此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제10구를 '이어긔사 最勝供이여'((바로) 여기[此岸]에서야 最勝供이네) 정도로 해독하기로 한다.

4. <廣修供養歌>의 해독 제안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 해독에 대해 지금까지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통해 제안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해독안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4.1. 해독안

火條 주머
佛前燈을 고텬 다ᄋᆡ
灯炷는 須弥여
灯油는 大海 일오거야
香은 法界 못ᄃᆞ록 ᄒᆞ며

40) 이러한 가능성은 구결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서울대 박진호 선생님에 의해 제기되었다.

香아마다 法ㅅ供ᄋᆞ로
法界 ᄎᆞ신 부텨
佛佛 周物ㅅ供 ᄒᆞᄉᆞᆸ져
아야 法供사 잇다 (ᄒᆞ)나
이어긔사 最勝供이여

4.2. 현대역

불가지 잡아
佛前燈을 고칠 때에
燈炷는 須彌요
燈油는 大海 이루었네
香은 法界 두루 하며
香마다에 法供으로
法界에 가득하신 부처
佛佛께 周物供養 하세
아! 法供이야 있다고 하나
(바로) 여기[此岸]에서야 最勝供이네

5. 맺음말

본고는 均如의 鄕歌 <廣修供養歌>에 대한 기존 해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더불어 석독구결 자료를 중심으로 한 차자표기 자료들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이를 새롭게 해독해 보고자 했다. <廣修供養歌>에는 고대국어의 어휘 및 문법 요소에 대해 천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연구 대상들이 존재하며, 이를 풀어 가는 과정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국어사의 이해를 요구한다.

특히 '執音馬'(*주머), '直体良焉多衣'(*고텬 다ᄋᆡ), '法供沙叱多奈'(*法供사 잇다 (ᄒᆞ)나), '伊於衣波'(*이어긔사) 등에 대한 해독은 본고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며 새롭게 해독안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향가, 이두, 구결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차자표기 자료들을 서로 연계시켜 그들 사이의 공통성과 관련성을 포착하는 입체적인 연구 방법은 앞으로도 향가의 '完全한 解讀'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방법론이란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參考文獻

姜吉云(2004), 『鄕歌新解讀硏究』, 한국문화사.

김두진(1997), 『한글대장경 釋華嚴敎分記圓通鈔[1]』, 東國譯經院.

김두진(1999), 『한글대장경 釋華嚴敎分記圓通鈔[2]』, 東國譯經院.

金敏洙(1980), 『新國語學史』(全訂版), 一潮閣.

金敏洙(2002), 「借字表記 音讀의 '隨書者之便'에 대하여」, 『口訣硏究』 9, 口訣學會, 5-18.

金善琪(1993), 『옛적노래의 새풀이』, 보성문화사.

김양진(2007), 「균여 향가의 '毛叱所只'와 구역인왕경 미해독자 'ᄐᆞᄆᆞᄇᆞᄉᆞ'의 연구」, 『국어사 연구』 7, 국어사학회, 53-70.

金完鎭(1980), 『鄕歌解讀法硏究』, 서울大出版部.

김완진(2000),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金裕範(1999), 「借字表記의 格과 助詞 -鄕札·口訣·吏讀의 格助詞에 대하여-」,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537-569.[김유범(2007다:85-113)에 재수록]

김유범(2001), 「시간성 의존명사 '다를 찾아서」, 『형태론』 3-2, 박이정, 209-229.

김유범(2007가), 「15세기 문헌자료의 특수 분철 표기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73-99.

김유범(2007나), 『중세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월인.
김유범(2007다), 『국어 문법형태소의 역사적 이해』, 박이정.
김유범(2008), 「'ㄱ'탈락 현상의 소멸에 관한 고찰 -16세기 이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3, 우리말학회, 35-55.
김유범(2009), 「한국의 한자 차자표기법에 대한 문자학적 조명과 교육 방안의 모색」, 『인간과 문화 연구』 15,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147-172.
金俊榮(1979), 『鄕歌文學』, 螢雪出版社.
金知見(1977), 『均如大師 華嚴學 全書(別刷)』, 大韓傳統佛敎硏究院.
김지오(2010), 「<懺悔業障歌>의 국어학적 해독」, 『口訣硏究』 24, 口訣學會, 61-96.
南豊鉉(1985), 「借字表記法의 '已'字에 대하여」, 『歷史言語學』(金芳漢先生回甲紀念論文集), 전예원, 15-21.
南豊鉉(1988), 「釋讀口訣의 起源에 대하여」, 『國語國文學』 100, 國語國文學會, 233-242.
南豊鉉(2010), 「獻花歌의 解讀」, 『口訣硏究』 24, 口訣學會, 5-35.
東國大學校譯經院(1976), 『高麗大藏經 47 補遺Ⅳ』, 東國大學校出版部.
東國譯經院(1987), 『한글대장경 華嚴經(四十卷本)』, 東國譯經院.
류 렬(2003), 『향가연구』(조선어학전서 13), 박이정.
朴炳采(1966), 「鄕歌 表記의 源流的 考察」, 『國語國文學』 32, 國語國文學會, 1-11.
박성종(1998), 「고대 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77-120.
박영준(1996), 「향가에 사용된 '也」'의 용법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52, 한국국어교육학회, 257-277.
박재민(2002), 「口訣로 본 普賢十願歌 解釋」,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박재민(2003), 「「普賢十願歌」 難解句 5題 -口訣을 基盤하여-」, 『口訣硏究』 10, 口訣學會, 143-175.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박진호(2008), 「鄕札 解讀과 國語 文法史」, 『國語學』 51, 國語學會, 313-338.

백두현(1997),「고려 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口訣硏究』2, 口訣學會, 27-95.
백두현(2005),『석독구결의 문자체계와 기능』, 한국문화사.
徐在克(1975),『新羅 鄕歌의 語彙硏究』, 啓明大出版部.
小倉進平(1929),『鄕歌及吏讀の硏究』, 京城大學文學部紀要.
安秉禧(1987),「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國語學』16, 國語學會, 41-54.
安秉禧·李珖鎬(1990),『中世國語文法論』, 學硏社.
梁柱東(1942/1965),『增訂 古歌硏究』, 一潮閣.
兪昌均(1996),『補訂 鄕歌批解』, 螢雪出版社.
이병기(2008),「慕竹旨郞歌의 해독에 대하여」,『口訣硏究』21, 口訣學會, 309-344.
李丞宰(1997),「朝鮮 初期 吏讀文의 語中 '-叱-'에 대하여」,『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태학사, 185-204.
이승재(1998),「고대 국어 형태」,『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41-75.
이 용(1997),「'-乙'에 대하여」,『口訣硏究』2, 口訣學會, 131-160.
이 용(2000),「廣修供養歌 '良焉多依'의 형태론적 고찰」,『형태론』2-1, 박이정, 107-119.
이 용(2007),「<恒順衆生歌>의 解讀에 對하여」,『口訣硏究』18, 口訣學會, 173-205.
李 鍾(1958),「鄕歌新解讀」,『國語學論攷』, 正音社.
李賢熙(1995),「'-아져'와 '-良結'」,『國語史와 借字表記』(素谷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 太學社, 411-428.
장윤희(2002),『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張允熙(2010),「中世國語 連結語尾 形成의 文法史」,『語文硏究』38-2, 韓國語文敎育硏究會, 61-90.
정렬모(1965),『향가 연구』, 사회 과학원 출판사.
정언학(2000),「15세기 국어 '시-'에 대한 재고」,『國語學』36, 國語學會, 283-314.
鄭在永(1996),『依存名詞 'ᄃᆞ'의 文法化』, 太學社.

池憲英(1947), 『鄕歌麗謠新釋』, 正音社.
최남희(1986), 『고려향가의 차자표기법 연구』, 弘文閣.
최동주(1996), 「중세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중세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52-209.
최미현(2005), 「차자표기 '巴'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새얼語文論集』 17, 새얼어문학회, 299-320.
崔喆·安大會(1986), 『譯註 均如傳』, 새문社.
홍기문(1956), 『향가 해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홍기문(1959), 『고가요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홍윤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황선엽(2008), 「三國遺事와 均如傳의 鄕札 表記字 비교」, 『國語學』 51, 國語學會, 279-416.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釋讀구결사전』, 박문사.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E-mail: kwangli@korea.ac.kr
접수일자: 2010. 05. 30.
심사일자: 2010. 06. 28.
게재결정: 2010. 07. 16.

The decipherment of *Gyunyeo*'s hyangga *Gwangsugongyangga*

Kim, Yupum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decipherment of *Gyunyeo*'s hyangga *Gwangsugongyangga*(廣修供養歌) through examining critically the previous decipherments and reflecting the studies built on the basis of materials in Chinese character-borrowing system, especially *Seokdok Kugyeol*(釋讀口訣). One of the most important songs of *Gyunyeo*'s hyangga, *Gwangsugongyangga* has a lot of elements relevant to words and grammatical morphemes of Ancient Korean language. We need all-round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to decipher this beautiful ancient song. To put it concretely, '*주머'(執音馬), '*고텬 다ᄋᆡ'(直体良焉多衣), '*法供사ᄋᆞᆺ다(ᄒᆞᆫ)나'(法供沙叱多奈), and '*이ᄒᆡ긔사'(伊於衣波) are the new decipherment for which I made a suggestion.

Key words : *Gwangsugongyangga*(廣修供養歌), *Hyangga*(鄕歌) decipherment, *Gyunyeo*, the biography of *Gyunyeo*, Chinese character-borrowing system in Korea